

# 나주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교육' 개최

### 희망 농가 300여명 참석...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 안내

전남남도 나주시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교육'을 지난 13일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동강홀에서 개최했다.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파종기와 수확기에 인력 공급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 제도는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2022년 32명을 시작으로 2023년 358명, 2024년 600명, 2025년에는 8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6년 1천 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는 나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번 교육에는 고용 희망 농가 30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고용주 준수사항, 근로자 입국 후 행정 절차, 근로 계약 체결, 숙소 제공, 인권 보호 및 안전 교육 등 실제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나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입국 후 행정 절차와 근로 계약 체결 및 숙소 제공 등 근로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상



세히 안내하여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해 보다 안정적이고

## 순천시, 전국이 찾는 '주민자치 선진지' 입증

### 5개 지역 100여 명 방문... 순천형 주민자치 모델 견학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2일 (수) 저전동 저전나눔터에서 영암군과 광양시 등 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순천형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 선도 도시로 평가받는 순천시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은 올해 5개 읍·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광양시는 2026년 전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장성읍 덕연동 주민자치회장의 우수사례 특강을 듣고, 저전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민거점시설을 방문했다. 현영하는 주민거점시설을 방문했다. 현영하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총회, 마을계획 의제발굴, 주민세 환원사업, 주민참여예산제 등 '순천형 주민자치'의 구체적 운영사례

를 청취했다.

특히 순천시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서 시작된 발전과정과 주민총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예산 운용의 투명성, 주민 참여문화 확산 등에 대해 참가자들은 "지방 자치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방문단은 "순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행정의 리더십뿐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역량과 의식수준에서 비롯됐다"며 "이 같은 주민자치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순천형 주민자치 모델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역역량 강화 교육과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간 상생의 자치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정장에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총회, 마을계획 의제발굴, 주민세 환원사업, 주민참여예산제 등 '순천형 주민자치'의 구체적 운영사례

순천/경성인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과 흡연·음주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관내 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618명을 대상으로 한 '도전! 흡연·음주 예방 골든벨'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담배·술의 폐해로 배우는 흡연·음주예방 골든벨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예선전에서는 O·X퀴즈를 통해 흡연과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질병, 법적 처벌 등을 알아봤고, 본선에서는 주관식 퀴즈를 통해 정부의 금연·절주 정책 변화와 국민 인식 개선 등을 학습하며, 청소년 스스로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 마지막에는 '가족의 건강과

## 무안군, 청소년 대상 '도전! 흡연·음주예방 골든벨' 성료

적 처벌 등을 알아봤고, 본선에서는 주관식 퀴즈를 통해 정부의 금연·절주 정책 변화와 국민 인식 개선 등을 학습하며, 청소년 스스로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 마지막에는 '가족의 건강과

패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금연 선편식'이 열려 학생들이 스스로 금연 의지를 다지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행사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교육 만족도 88%, 내용 이해도 87%, 기대 충족도 86%로 나타나, 학생들

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참여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미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골든벨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진도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진행

진도군은 지난 13일(목)에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김선주 부군수,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참석해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폭력 발생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김향순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성희롱, 성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과 대응 방안, 관리자로서의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 곡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이 함께 지킨다!

곡성군은 지난 11월 13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곡성군, 곡성군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곡성경찰서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곡성읍 아파트 단지, 육과 소재 대학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표지 미부착 및 부당 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부 장소에서 주차 표지 미갱신, 보호자 미탑승 등이 주요 사례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안내장을 발급하였다.

곡성/이정수 기자



### 함평군 해보면 4·8 만세운동기념탑, '생활환경숲' 새단장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지역의 향일정신을 되새기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녹색 쉼터를 조성했다.

함평군은 해보면 4·8 만세운동 기념탑 주변 생활환경숲을 11월 초 조성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함평의 자랑스러운 향일 정신을 전승하고자 추진됐다.

생활환경숲에는 우리 민족의 상징수인 무궁화를 중심으로 블루엔젤, 선주목, 팽나무 등 다양한 조경수와 초화류가 식재돼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함평/전광훈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